



“육군사관학교 충남으로”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10월 5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 돌입을 알렸다.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육사 충남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힘차게 달려온 100일...충남발전 큰 그림 그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취임 100일 민선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

100일 중점과제 달성률 91%
도정 기반 강화, 협상력 발휘
강한 추진력으로 확실한 변화

1호 공약 ‘베이벨리 메가시티’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100일 동안 미래 먹거리
찾기에 주안점을 두고 도정 현안 해결, 선도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무엇보다 강한 추진력으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등 현안을 신속하
게 해결하고, 국회와 협력해 국비 확보에도 앞장
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0월 5일 도청 대회의
실에서 열린 민선8기 출범 100일 힘센충남 도
정 보고 기자회견에서 “100일 전 세운 중점과
제 34개 중 31개를 완료했다. 100일 과제는 4년
임기 내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0일 중점과제 34개 중 ▲베이벨리 메가시티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해양수산부·보령시·민간기업과 업무
협약 체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순
항 ▲리브투게더 첫 사업 대상지 확정 ▲천안·
공주·논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등 31개를 완
료했다.

100일 성과는 향후 미래 발전 기반을 마련하
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민선8기 핵심 과제이자 김 지사의 1호 결재 사
항인 베이벨리 메가시티(아산만 일대 초광역 생
활·경제권)는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
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
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만드는 대규모 계획이다.

도는 9월 경기도와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10월 4일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며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순항 중
이다.

원산도 인근 5개 섬을 개발해 글로벌 해양레
저관광도시로 조성하는 오션 아일랜드 사업이
달트 올렸다. 도는 9월 해양수산부, 보령시, 민간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30년까지 1조

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센 충청남도 구현’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제2서해대교 건설, 서산공항 건설, 호남선
고속화 등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아울러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서비스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출범...육사 논산·계룡 유치 총력 대응
농업구조 변화·지역균형발전·新경제산업지도 구축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도정 현안 해결하고 대한민국 선도”

1254억 원을 투입한다.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3·4지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본궤도에
올랐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재추진한다.

국방국가산업 육성과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유치 추진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탄소중립 주도권 선점과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해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 탄소 배
출 저감과 경제 성장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탄소중립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충남형 주택공급정책인
리브투게더 사업은 임기 내 5000호 건립 목표로
추진한다.

금산에 설치될 충남남부출장소는 추진체계를
마련해 내년 1월 정식 개청·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도민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라며 “힘센충남은 도민의
강한 성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정책기획관 041-635-3111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민선8기 출범 100일 성과	2면
기자회견 전문	3면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4면
민선8기 출범 100일 기록	5면
충남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개관	8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이론다” 균형발전에 집중

‘힘센충남’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충남도는 주요 현안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국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무엇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만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안면도와 원산도 개발 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하며, 도민 의지와 염원을 모아 육사 충남 유치에 강력 추진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 과제를 살펴본다.

1호 결재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남·경기 협약 맺고, 민·관 합동
추진단 발족 등 사업 추진 속도

원산도·삼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국제 해양관광벨트 거점으로
리조트, 해양케이블카 조성

‘육사 충남 유치’ 도민 뭉쳤다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출범
대정부 촉구 활동 등 총력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충남도는 핵심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에 주력한다.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자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은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월 29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도는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순환철도는 103.7km 규모로, 당진 합덕~예산 신례원 12km를 신설하고, 경부선·장항선·서해선 등 기존 91.7km 노선을 활용한다. 천안과 아산, 평택 등 아산만 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평택·당진항은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충남과 경기 해안지역은 국제적 관광지(K-골드코스트)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양 지역 경계와 여야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 도는 이번 협약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약과제 국가계획 반영 등 공

동협력력을 추진한다.

이어 도는 10월 4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자문위원 위촉 및 민·관 합동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추진 방향 자문 ▲사업 추진 및 정부 정책 반영 전략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민·관 합동 추진단은 민간인 30명과 도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기획지원, 산업경제, 국토해양,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아산만권 발전방향과 사업 추진 지원 ▲미래사업 발굴 ▲정부·국회·지자체·관계기관 등 대외협력 등의 활동을 편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충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해 1조 1254억 원을 투입해 원산도 등 5개 섬을 묶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도는 9월 14일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명소노그룹과 원산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시범모델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산도와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 5개 섬을 대상으로,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원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삼시도 아트 아일랜드 조성 ▲삼 시 국제 비

엔날레 개최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원산도·삼시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등 9개 추진과제를 진행한다.

이중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는 전동서핑보드, 체트스키 등 해양레포츠 체험 등이 가능한 시설로 꾸미고, 해양 문화자원 및 미술품을 활용한 섬 국제 비엔날레를 2026년 개최한다.

대명소노그룹이 추진 중인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는 숙박시설(객실 2000여실), 오락·휴양시설(승마장, 식물원, 캠핑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원산도와 삼시도 3.9km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케이블카도 설치, 2026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을 통해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4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100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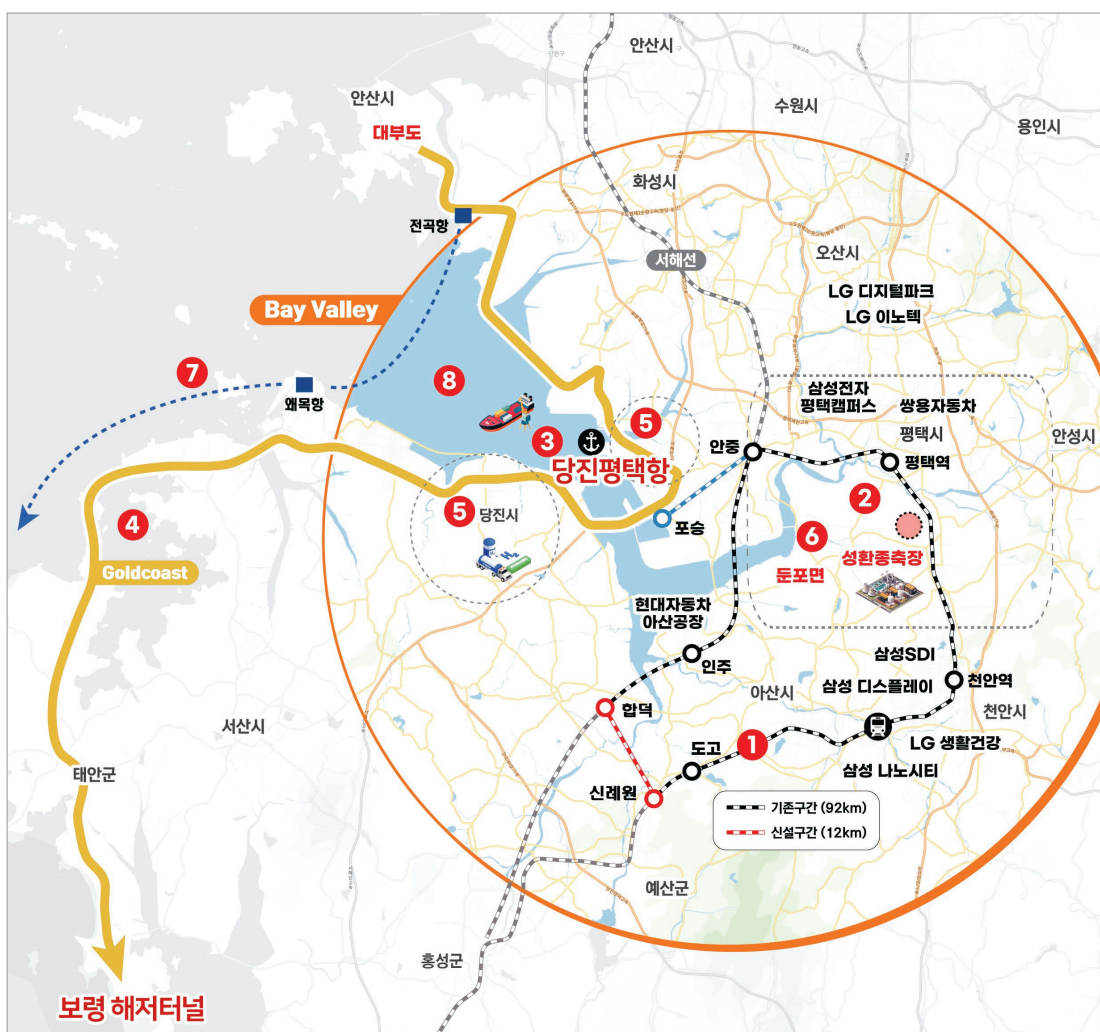
이외 도정의 해묵은 숙제인 안면도 관광지는 지난 7월 3·4지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본 궤도에 올랐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재개최를 위해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타당성 제조사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면으로 이어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주요사업

- 1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 2 충남·경기 연접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 3 당진·평택항 물류 환경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 4 충남·경기 해안지역 국제적 관광지(K-골드코스트) 발전
- 5 수소 산업 공동협력으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
- 6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
- 7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 해양레저산업 발전
- 8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 9 충남·경기 현안 사항과 중장기 발전 방향 공동연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현황도



김태흠 도지사가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탄소중립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흠 도지사가 충남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충남도는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에 힘쓴다.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 개선으로 농어업의 선순환 구조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유입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농어업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형 청년 농업인 육성,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지원, 간척지 활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간척지 첨단 양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원한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유치

충남도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충남 논산·계룡 이전에 총력 대응한다. 충남은 국방 인프라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육사 이전 최적지로 꼽힌다.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국방대가 있고 국방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으며, 계룡에는 삼군 본부가 자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 유관기관 30여 개가 인접해 있다.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범도민추진위)는 10월 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 돌입을 안팎에 알렸다.

범도민추진위에는 총 491명의 지역 인사가 참

여했다. 이경용 충남새마을회 회장과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상임위원장을, 차호열 국제로타리3620지구 회장 등 1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도내 사회단체대표자회의와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 188명, 도의원과 시군의원 225명, 학계 12명 등 모두 4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시장군수 15명, 대학총장 23명, 충남연구원장 등 50명은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범도민추진위를 지원한다.

범도민추진위는 앞으로 육사 충남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20만 도민 역량을 결집한다.

또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공약 조속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방위로 전개한다.

오는 11월에는 국회에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범도민추진위는 ▲육사 충남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220만 도민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 ▲육사 새 출발을 위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국방교육연구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태흠 지사는 “튼튼한 국방의 근본은 확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갖춘 정예장교 양성에 있으며, 육사 발전과 혁신은 우리 국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충남은 육사를 유치해 튼튼한 국방의 뿌리인 육사를 발전시키고 지역 균형발전도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도정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센충남이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백일은, 강한 추진력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백일이었습니다.

힘센충남은 100일 전 세운 중점과제 34개 중 31개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의 첫 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민관합동 추진단을 통해 기본계획이 공동 수립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보령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첫발도 내디뎠습니다.

기업과 대학의 상생협력체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대학에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단조를 마련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착공하고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를 구상하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5천호 건립이 목표인 리브투게더 사업은 현장설명회를 거쳐 첫사업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천안역에서 팽택지제역을 연결하는 M버스는 이번 달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천안, 공주, 논산의 부동산 조정지역도 해제되었습니다. 남부권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은 국책연구기관과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재추진을 위한 추경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금산에 설치될 충남 남부출장소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도청은 3D 도청사를 구축해 시범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이처럼 31개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완성된 나머지 3개 과제 중 내포신도시 완성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동향을 살피고 있고, 충청 지방은행 설립은 민간중심 TF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 중이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확정도 부지 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00일 과정은 백일을 넘어 4년 임기 내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충남은 이처럼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힘센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정과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충남은 스마트팜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일구고 있습니다. 먼저, 간척지에 축산 스마트팜과 인큐베이터를 설계하여 스마트농업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팜 사관학교와 교육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청년들이 진입하여 정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품종 연금제를 연구하고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중입니다.

둘째,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병원 유치에 힘쓰고 온천, 관광 등의 기능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 자금이 투자되는 안면도와 원산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제휴양 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육사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문화명품 관광도시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과 위케이션 충남 추진으로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셋째, 충남의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선도의 포석이 될, 수소도시 조성과 그린수소 전문 연구센터는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과 해양관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육성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2서해대교와 서산공항 건설, 호남선 고속화 등 교통물류 인프라도 갖춰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넷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한 서남부권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4대 의료원의 기능을 특화하는 등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의 전문성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망도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힘센충남이 나아간 100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나아간 것 같지만 이제 겨우 뱃머리를 돌렸을 뿐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술한 고비와 거센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도민의 지지와 성원이 도정의 가장 큰 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힘센충남은 도정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계룡이전

리얼미터, 국민 인식 확인 여론조사

◆조사시기 : 2022.9.23. ~ 9.24

◆조사대상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

◆조사방법 : 자동 응답 시스템(ARS) 방식

◆표본오차 : ±3.10%포인트(신뢰수준 95%)

1 육사 논산·계룡 이전 찬성합니까?

찬성한다 47.7%,
반대한다 37.1%,
잘 모르겠다 15.2%

반대한다
37.1%

찬성한다
47.7%

2 서울 소재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도움 안된다
34.6%

도움 된다
55.7%

도움이 된다 55.7%,
도움이 되지 않는다 34.6%,
잘 모르겠다 9.6%

충남도청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 경제 5대 핵심 가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 일환으로 '수소도시 조성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신성장동력 창출한다

탄소중립 경제로 기회 넘치는 충남
경제산업 구조 혁신 선제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중심 기업 생태계 전환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 중인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

도는 10월 6일 ‘민선8기, 힘센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태홍 지사와 김상협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250여 명이 참석, 도의 미래 구상에 대한 응원과 동참의 뜻을 전했다.

탄소중립 경제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활용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의 이번 선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문제를 뛰어넘는 탄소중립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도는 ‘탄소중립 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센 충청남도 구현’을 탄소중립 경제 특

별도 비전으로 설정했다.

핵심 가치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공정)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혁신(창의) ▲청정 이(e)·미래기술·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혁신) ▲무·저탄소를 선도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전환) ▲지속가능한 자원 에너지 공급 체계 확립(순환) 등을 내세웠다.

분야별 전략은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핵심 기술 개발, 수소 환원 제철 등 미래 신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CF100(무탄소 전원 사용 100%) 산단 조성, 탄소자원화 실증 등 청정 에너지 중심 기업 생태계 전환 ▲바이오플라스틱 실증 기반,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등 탄소중립 가속화 인프라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일자리 전환 지원 등 저탄소 산업 고용 창출 등이다.

또 ▲언더2연합·탈석탄 동맹 등을 통한 국제 리더십 발휘 ▲주민 수익형 발전소, 에너지 자립마을 등 공동체 수익 모델 창출 ▲에너지 리빙랩 활성화 등 탄소중립 문화 정착 ▲일상 속 탄소 배출 습관 확산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사용 활성화 등도 분야별 전략으로 잡았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세부 이행 방안은 추후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 할 계획이다.

이날 김태홍 지사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며 “충남은 탄소중립 경제를 통해 규제와 억제 없이,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포식 일환으로 도와 보령·당진시, 한국중부발전,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수소도시 조성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협력하고, 보령·당진시는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주관, 인허가, 유관기관 협의 등 행·재정적 지원에 협력한다.

중부발전은 보령 수소도시 지역 특화사업으로 수소 기반 발전 실증, 수소 공급시설 운영 등에 협력하고,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는 보령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수소 공급 및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당진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부생수소 공급시설 운영, 수소충전소 운영 등에 협력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진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운영에 협력한다.

/에너지과 041-635-3456

탄소중립 경제 5대 핵심가치

공정 정의롭고 합리적인 지역 산업구조 전환

정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혁신

혁신 청정에너지·미래기술·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전환 무·저탄소를 선도하는 기업생태계 구축

순환 지속가능한 자원 에너지공급 체계 확립



“명확한 목표와 방향으로 달려 나가는 충남 만들 것”

제27회 충청남도민의 날 기념식

군문화엑스포 행사장서 개최

도민헌장 낭독, 모범도민 표창 등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도민들과 함께 ‘힘찬 비상! 힘센충남’을 향한 도전’을 다짐했다.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10월 12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상설무대에서 열린 ‘제27회 충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중간만 가는 충남, 밋밋하고 특색 없는 충남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이 선도적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를 중앙정부와 다른 시도로 전파해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행복하고 잘사는 충남, 힘세고 강한 충남을 희망하는 220만 도민의 염원을 강한 추진력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힘찬 다짐을 다 함께 나누자”며 “백제인의 후예로서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220만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의 화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힘찬 비상! 다 함께, 더 힘차게’라는 주제로 열린 제27회 도민의 날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민 1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충남국악단, 한국케이팝(K-POP)고등학교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육군 군악의장대대 취타대 입장 퍼레이드, 제3보병사단 부사관 부부의 도민헌장 낭독, 모범도민 표창 등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은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민의 날은 1996년 ‘개도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10월 5일을 도민의 날로 제정·선포된 기념일로, 10월 초 백제의 웅진전도 시기를 고



충남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충남의 힘찬 비상을 응원하고 있다.

려해 지정했다.

도는 1997년 이후 23년 만인 2020년부터 도민의 날을 단독 기념행사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해 도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06

제39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식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9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첫 결재 '베이벨리 메가시티'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취임 후 첫 결재로 민선 8기 핵심과제인 '베이벨리 메가시티'에 사인하고 있다.

100년을 내다보는 100일의 기록

민선 8기 충남도정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민선 8기 '힘쎈충남'은 지난 100일 동안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점과제 34개 중 31개를 완료하는 등 충남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1호 결재였던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첫 관문을 열었고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도 순항하고 있다. 임기 내 5천호 건립이 목표인 리브투게더 사업도 첫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천안역에서 평택

지제역을 연결하는 M버스는 이번 달부터 운행한다. 이와 함께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10월 4일 실국원장회의에서 "100일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도정을 위해 한글탈태 이상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100년 미래를 위해 힘차게 달려온 100일을 김태홍 지사의 발자취를 따라 살펴본다.

/이해튼 deun127@korea.kr



2022년 8월 5일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금산 출신 애국지사로 대전에 거주 중인 이일남(97) 옹의 자택을 방문해 감사의 뜻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2022년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령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충남 15개 시·군 방문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자인 금산군을 방문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원산도 일대 5개섬을 관광해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9월 15일

18개사 기업 투자협약 국내 우량 중소기업 18개사와 4282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현장의 막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케이(K)-유교문화 거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문 열어

도서관·기록관·박물관 통합공간
유교문화 교육, 체험도 가능해
K-유교 글로벌 콘텐츠 개발 등

국내 최초 유교문화 전문기관으로, 유교문화 및 국학 진흥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케이(K)-유교문화 세계화에 앞장서게 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10월 1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일원에 위치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일환으로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본관과 한옥연수원 7개 동으로 구성됐다.

본관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라비키움 형식의 문화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장고, 보존처리실, 유물정리실 등 충청권 민간 기록유산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연구시설도 구축했다.

한옥연수원은 유교문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중점 추진 과제는 ▲케이(K)-유교문화 글로벌 콘텐츠 개발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환황해 유교 교류 추진 ▲한국 유교문화의 현대적 가치 발굴 ▲충청유교문화권 진흥 사업 추진 ▲생활 밀착형 유교문화 발굴 등이다.

이날 개원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한국의 유교문화를 세계에 확산시켜 그 정신과 가치를 인류의 유산으로 발전시키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케이(K)-유교 에코 뮤지엄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근에 조성,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논산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교문화도시로 중점 육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충남이 케이(K)-유교문화의 세계화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뒤 “그 선도 사업으로 향교, 서원, 고택 등과 같은 유교문화유산이 집중한 논산을 지붕없는 박물관인 ‘케이(K)-유교 에코 뮤지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K)-유교 에코 뮤지엄은 2026년까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근에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 건축연면적 730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문화유산과 041-635-3917

100대 건설기업 대표와 건설산업 미래 논의

대형건설사 초청 간담회 개최
“상생협력문화 구축 최우선”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국내 100대 건설기업 대표들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10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호반건설, 디엘건설, 중흥토건,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동부건설, 두산

건설, 한신공영, 동원개발, 반도건설, 금성백조주택, 대광건설, 삼부토건 등 13개 기업 대표이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와 구조적 문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건설산업과 관련,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상생협력문화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김 위원은 “지자체는 상생의 가치를 중시하는 건설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 주체인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2차협력자’ 상호 간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에 초점을 둔 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건설정책과 041-635-4624

조미김 등 1503만 불 수출 상담 ‘성과’

카자흐스탄 등서 수출 상담회
머드화장품 등 도내 6개사 참가

충남도는 최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으로 ‘2022년 수출 상담회’를 열고, 총 150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체결한 수출 계약 규모는 8건 총 331만 달러에 이른다.

수출 상담회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해양·수산 분야의 중소기업에 위해 바이어 발굴 및 판로 개척, 온라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했으며, 이번 상담회에서는 현지 제품 동향 설명회, 현지 시장조사, 수출 상담 등을 진행했다.

해외 현지에서 진행한 수출 상담회는 지난 7월 베트남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며, 9월 2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9월 30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에서 각각 추진했다.

참가 기업은 도내 해양·수산 분야 기업 6개사이며, 이들 기업은 키조개 육포, 해초 소금, 스틱 김자반, 마른김, 머드 화장품 등 지역 우수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상담 활동을 펼쳤다.

또 수산 식품의 내륙 국가 진출을 위한 홍보와 시식 행사 등도 병행해 인식 개선에도 앞장섰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머드화장품에 현지 바이어의 관심이 집중돼 향후 카자흐스탄 등 독립 국가 연합(CIS) 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

/어촌산업과 041-635-4843

10월, 햃곡식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그해에 얻은 곡식

“묵은 곡식버더야 햃곡식이루 현 밭이 흠씬 낫지. 그러, 스속밥두 햃곡식이 들 딱딱히당께.”

‘곡식’은 ‘곡식’의 충청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거리다. 옛날에는 쌀과 보리, 콩과 조, 기장을 이르러 오곡(五穀)이라 했다. 오곡은 선조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이르는 말이었는데,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보리, 조, 기장’을 빼고 ‘밀, 옥수수, 옥류’ 따위를 넣어야 할 것 같다.

‘햃곡식’은 그해에 바심하여 얻은 곡식이다. ‘햃곡식’은 주로 가을에 나왔다. 가을이 되면 논에서 벼가 거둬지고, 밭에서는 조와 기장, 수수, 콩이 거둬졌다. 이런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충청도 사람들은 ‘바심’이라 하였고, 바심은 가을에 주로 이루어져 ‘추수(秋收)’라 하였다. ‘추수(秋收)’는

충청도에서 많이 쓰는 ‘갈걷이’나 ‘갈바심’의 한자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밥은 쌀밥을 최고로 친다. 그래서 보통 ‘햃곡식’이라 하면 배방아를 통해 얻은 ‘햃쌀’을 뜻한다. 그렇지만 예전 충청도에는 논이 적고 밭이 많았다. 농토의 80% 이상이 밭이었다. 그래서 햃곡식이라 하면 햃쌀만이 아니라, 가을걷이로 얻은 햃조나 햃기장, 햃콩도 모두 햃곡식이었다.

‘햃곡식’이 나오는 충청의 가을은 풍성했다. 이 가을걷이로 내년 가을까지 먹어야 했다. 충청의 농부들은 늦도록 바빴다. 배이삭 하나 콩대 하나 귀하게 거둬들였다. 묵은 곡식이 아닌 햃곡식으로 지은 밥은 차지고 향기로웠다. 위 예문에 나오는 ‘스속밥’은 ‘조밥’의 충청말이다. 식으면 딱딱하게 굳어 숟가락을 거부하는 기장밥이나 조밥도 이 가을 햃것으로 지으면 부드러웠다.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열병식서 때를 기다리던 윤봉길, 폭탄 던지다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13)의탄(義彈)을 던져 원흉들을 처단하다

기념식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열병식으로 예행 연습을 마친 군인들이 홍구공원 바로 옆에 있는 북사천로의 일본인 소학교에 집결하였다가 오전 8시 30분부터 정문을 통해 행사장으로 입장하였다. 열병식에는 육군에서 제9사단의 기관총부대, 기병대, 보병대, 야포대, 치중대 등 6천명, 해군에서는 잠갑차 6대를 비롯하여 기계화 자전거부대,

의무대 등 3천명, 그리고 이외에도 헌병대 1천여 명 등 1만여 명이 동원되었다. 육군 장갑차 14대와 기병대 소속 오토바이가 행사장에 들어가는 군인들을 앞에서 이끌었다. 행사장 사방에는 무장한 순경들이 물샐틈없는 경계망을 펼쳤다.

시라카와(白川義則) 대장을 비롯하여 시게미츠(重光葵) 주중공사, 우에다(植田謙吉) 중장, 노무라(野村吉三郎) 중장 등이 줄지어 식단에 올라 나란히 늘어섰다. 천장절을 경축하는 군악대의 연주가 있는 뒤, 시라카와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이 끝난 10시 30분부터 열병식이 이어졌다. 각 차량부대가 먼저 분열을 마치고 보병의 분

열과 행진이 있었다. 분열에 참가한 병사들은 사령대와 검열관 앞을 지나갈 때 모두 거중 자세로 목례를 하였다. 행사장 위에는 18대의 비행기가 낮게 곡예비행을 하면서 분위기를 달구었다. 11시 20분경 열병식이 모두 끝났다.

이어서 제2부 축하식을 거행하기 위해 시라카와 등은 다시 식단에 올랐다. 단상 위에는 모두 7명이 늘어섰다. 식단의 전면에 일본군 장교들이 서 있었고, 그 앞쪽 가운데에는 일본인 재향군인과 의용대, 그리고 소학교 학생들이 있었다. 식단의 좌우에는 일본 육해군이 무장을 하고 줄지어 늘어섰다. 식단의 뒤쪽에는 고관들의 신변 호위를 위하여 기마

병 6명이 식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뒤 약 5,6미터쯤 되는 곳에 헌병 몇 명이 경계를 섰다. 그 뒤쪽으로 일반관람석은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윤봉길은 그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축하식이 시작되었다. 마침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단상에서 있던 일본의 중요 간부들의 축하가 끝났다. 이어서 참석자 모두가 일어서서 엄숙하게 기미가요를 합창하였다. 이들이 기미가요 2절의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45명이 수선을 하느라 소란하였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행사가 거의 마무리되자 참석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윤봉

길은 지금 이 순간이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식단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 나갔다. 이때 식단 뒤에서 말을 타고 경계를 하던 기병 2명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검문하려고 말에서 내렸다. 그 순간 윤봉길은 도시락형 폭탄을 땅에 내려놓고 수통형 폭탄을 어깨에서 내려 왼손으로 안전핀을 잡아당긴 후 식단을 향하여 폭탄을 던졌다. 이때가 오전 11시 50분경이었다.



김 상 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해군의장대 공연



블랙이글스 공연

**평화의 하모니 ‘활짝’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막**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군문화엑스포는 오는 23일까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군문화엑스포는 충남도와 계룡시가 주최하고,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특히 콜롬비아 출신 6.25 참전용사 마르코 톨리오 바론 리베라 씨(90)가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3



◀김태홍 도지사가 콜롬비아 출신 참전용사 마르코씨와 인사하고 있다.

충남 남부민원지원센터 운영

도민 민원처리 등 불편 최소화 내년부터 충남남부출장소 출범

충남도는 논산·계룡·금산에 거주하는 도민의 민원처리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남부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한다.(사진) 금산 진산면 진산애행복누리센터 내에 문을 연 남부민원지원센터는 충남 남부출장소가 출범하는 내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민원 직접처리 대상은 가족인공수정사 면허 발급·면허증 재교부, 확인원(기술자 및 기능사증명서, 공무원 경

력확인서) 등 6종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 즉시 처리민원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사료성분 등록 신청 등 유기한 처리민원은 본청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남부민원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남부출장소는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도청사 이전 후 거주지와 도청간 거리가 멀어 행정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남부권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논산·계룡·금산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거쳐 접근성과 지역개



발 촉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금산군 진산면으로 입지를 결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남부출장소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약사업”이라며 “내년 1월 본격 출범하면 민원편의 뿐만 아니라 인삼 약초와 국방산업까지 지역특화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685

도정게시판

금강수목원, 나라꽃 무궁화 명소 충남도립대, 수시1차 경쟁률 3대 1

충남도 산림자연연구소 금강수목원은 최근 산림청 주관 ‘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아 전국 무궁화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명소로 선정된 금강수목원의 무궁화동산은 수목원 내 1.9ha 부지에 조성한 자연학습 공간으로, 총 36개 품종 500여 본의 무궁화를 보유 중이다. 무궁화동산은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나라꽃 무궁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도 산림자연연구소가 지난 2001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나라꽃 무궁화로 조성한 한반도 모양의 동산이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충남도 산림자연연구소 041-635-7372

충남도립대학교는 수시1차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시1차 모집인원은 387명(입학정원 456명)이며, 총 1165명이 지원했다. 주요 학과별 경쟁률은 작업치료학과가 5.1대 1로 가장 높았고 경찰행정학과가 4.8대 1로 뒤를 이었다. 수시1차 합격자 발표는 내달 1일이며 충남도립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입생 무상교육(전액장학금)을 실현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99

국내 첫 ‘중질유 석유화학설비’ 충남서 가동

서산서 현대케미칼 공장 준공식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제품 생산

충남 서산 대산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일곱 번째 ‘중질유 기반 석유화학설비(HPC)’가 새롭게 터를 잡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출자해 설립한 현대케미칼의 HPC 공장

준공식이 10월 12일 서산 대산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열렸다. HPC 프로젝트는 탈황중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공정이다. 중질유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현대케미칼을 비롯해 세계에 7개만 존재한다. 주요 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은 ▲에틸렌초산비닐(EVA) 24만 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55만 톤 ▲폴리프

로필렌(PP) 50만 톤 ▲부타디엔 17만 톤 등이다. 도와 현대케미칼은 이번 HPC 공장이 연간 3조 8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수출 증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 가동을 통해 15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육성과 041-635-3926

외국인 맞춤형 지역 관광상품 개발 충남 시작장애인복지대회 개최

충남도가 외국 여행사와 함께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나섰다. 도는 10월 7일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막에 맞춰 베트남 하노이 여행사 대표 8명을 초청해 엑스포 현장 및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베트남 여행사 대표단은 이번 방문 행사를 통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류 드라마 체험지, 역사문화 유적지 등 관광자원을 둘러봤다. 이날 여행사 대표들은 앞으로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관광진흥과 041-635-3894

충남도는 12일 천안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야외운동장에서 ‘제43회 한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10월 15일 한지팡이의 날을 맞아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당진시지회 사물놀이팀 ‘신바람 사물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한지팡이 헌장낭독, 한지팡이 전달식,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 대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도내 시각장애인은 1만 2000여 명이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1

한 해의 소원을 응답 받는 백월산 맷돌바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알려주는 충남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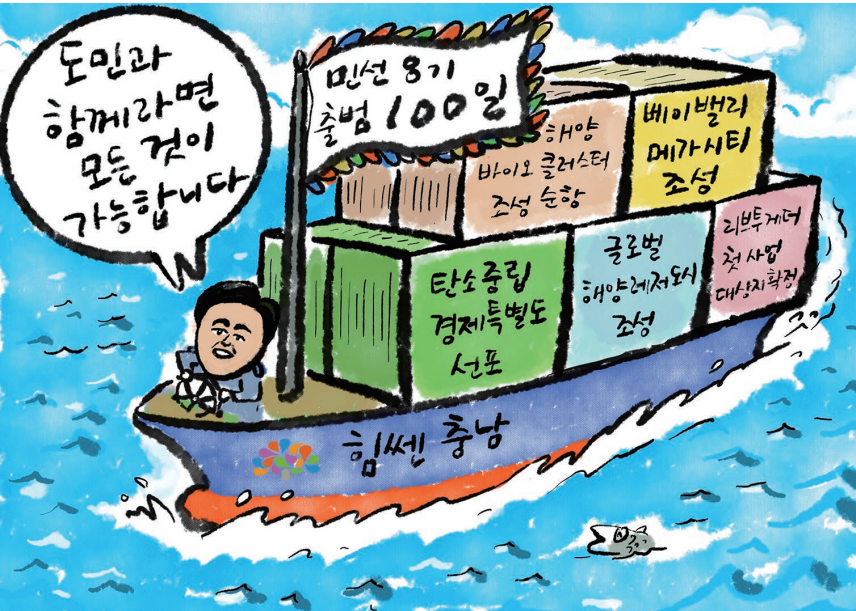
홍성군 홍성읍 중심가에서 서북쪽으로 4km쯤 떨어진 곳에 해발 394m인 월산(月山)이 우뚝 솟아있다. 월산은 백월산 또는 일월산 등으로도 부르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해바다의 석양모습이 일품이다. 월산은 홍성의 진산이며 이 지역 제천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특히 월산 정상 부근에 서있는 홍주청난사는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찾아와 치성을 드리는 기도처로 유명하다. 홍주청난사는, 조선시대 홍주목사를 지낸 홍가신의 치적을 기려 세운 사당이다. 속칭 ‘홍대감 사당’이라 부르는 사당 안에는 홍주목사 홍가신의 가족으로 알려진 다섯 명의 목각상이 있다.

홍주청난사 안에 아주 재미있는 바위가 있다. 바위 이름이 ‘맷돌바위’이다. 바위 모습이 맷돌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맷돌바위는 옛날부터 정초에 사람들이 찾아와 소원을 비는 바위로 유명하다. 맷돌바위는 사당 안쪽 홍가신 가족의 목각상을 올려놓은 진열대 바로 아래로 땅속에 반쯤 묻혀있다. 맷돌바위 몸통 위에는 어른 손바닥 크기의 돌 한 개가 놓여 있다. 매년 정초마다 맷돌바위는 아주 바쁘다. 월산 산신령님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없이 뱅뱅 돌아간다. 특히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므로 쉴 새가 없다. 해맞이를 마친 사람들은 홍가신 목각상 앞에서 공손히 절을 하고 맷돌바위 앞에 다소곳하게 무릎 꿇고 앉는다.

새해 소원을 말하며 맷돌바위에 놓여있는 작은 돌을 맷돌 돌리듯이 빙빙 돌린다. 어느 순간 손에 잡고 빙빙 돌리던 돌이 맷돌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맷돌바위에 돌이 달라붙으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신호이다. 월산 산신령님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약속인 것이다.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다. 사람들마다 맷돌바위에 돌이 착착 달라붙는다. 월산 산신령님의 답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미소가 넘친다. 월산 맷돌바위는 찾는 이들에게 새해의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고마운 바위이다. 새해에는 원하는 일마다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선물을 한 아름씩 안겨주는 고마운 바위이다. /김정현 내포구비문학연구소장

도정만화

신 명 환



서울 북촌에 충남 예술인 전문 화랑 개관

〈시엔 갤러리〉

11월 27일까지 개관기념전
김두환·이응노·이종무·최덕휴
충남 대표 화백 작품 전시

충남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전문 전시 공간이 서울 북촌에 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충남문화재단과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시엔(CN, ChungNam) 갤러리’를 개관했다. 전시장은 1·2층 총 231㎡ 규모로, 서울 내 핵심 관광 명소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경복궁 옆 북촌한옥마을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정독도서관 사이 위치해 있다. 시엔 갤러리는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전시·홍보하는 공간으로써 지역 예술가의 수도권 진출과 미술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엔 갤러리에서는 도내 예술가와 출향 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전시·홍보 ▲예술인 간 관계망 형성 ▲예술품판매를 위한 옥션 참여와 주요 기획전 발탁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유망한 신진 작가를 발굴해 서울 지역에 소개하는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도는 전시장 개관을 기념해 개관전으로 ‘서쪽의 거장들’을 기획, 충남을 대표하는 작가 4명의 작품 45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설봉 김두환(1913-1994, 예산) ▲고암 이응노(1904-1989, 홍성) ▲당림 이종무(1916-2003, 아산) ▲광복 작가 최덕휴(1922-1998, 홍성)이다.



이종무, 가을 추수풍경 (Harvest Landscape), 65x53cm, Oil on Canvas, 1979



시엔 갤러리 모습.

이번 개관전 이후에는 오는 12월 기획전 ‘서쪽의 거장들’을 열고, 지역 작가 공동 전시, 대관 전시 등을 열 계획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24

‘독서의 계절’ 충남도서관서 즐거움 만끽하세요

강연,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충남도서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의 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영화 상영, 강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일과 27일 오후 7시부터는 문화교육동 다목적실에서 ‘책 읽어주는 사서’ 정소이 사서의 ‘공정하다는 착각’

과 ‘사서고생’ 김민지 사서의 ‘작은 아씨들’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전시는 ‘집과 공간’을 주제로 30일까지 3층 다목적실에서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북큐레이션을 별도 운영한다. 기획전시로는 16일까지 ‘민화 전시’, 17일부터 30일까지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를 준비했으며, 2층 기획 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서관(☎041-635-8000)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https://library.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서관 041-635-8061



충남도서관 모습.

공주-세종 광역 BRT 2025년 운행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심의 통과

충남 공주와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25년 운행을 목표로 한다. 공주-세종 노선 총길이는 18.5km이며, 주요 노선은 공주종합버스터미

널-신관 중앙교차로-번영1로-신관초-국도 36호(서세종 나들목)-정부세종청사-세종충남대병원-세종시 한별동으로, 12개 지점(24곳)의 정류장을 경유한다. 공주-세종 광역 BRT 개통 시 이 동시시간은 기존 57분에서 39분으로 약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2

충남안전체험관, 재난 체험프로그램 대상 확대한다

기존 8세 이상→7세까지 확대

충남안전체험관은 재난 체험 대상을 기존 8세 이상에서 7세 아동까지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미취학(4~7세) 아동의 경우 체험관 1층에 마련된 ‘어린이 안전마을’에서 화재·생활·교통 등 3가지 주제로 교육을 받아 왔다. 이번 교육 대상 확대는 7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자연 재난 체험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지하철 화재 대피요령, 고층 건축물 화재 대피요령, 교통사고 예방 교육, 지진·태풍 체험, 수난사고 시 구명조끼 착용법 등이다. 체험은 사전 예약을 마친 유치원 등 단체로 참여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운영된다. /충남안전체험관 041-559-9735



어린이들이 충남안전체험관 수난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

국방대 외국군 장교단 초청

도정 홍보, 국제 협력 강화

충남도는 10월 12일 서산 등 도내 일원에서 민선 8기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지방 공공외교 강화 및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방대 외국군 장교단 초청 행사’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국방대 안보과정의 외국군 고위 장교 연수생을 대상으로 도에 대해 알리고 국제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초청받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군 고위 장교 4명은 도청을 방문해 국방 산업 및 지역 관광산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장교단은 도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서산 해미읍성으로 이동해 조선시대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탐방했으며, 서산 대산 한화토탈에너지스 공장도 견학해 석유화학 공정과 연구에 대해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통상과 041-635-2251

아, 베트남,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군 고위 장교 4명은 도청을 방문해 국방 산업 및 지역 관광산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장교단은 도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서산 해미읍성으로 이동해 조선시대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탐방했으며, 서산 대산 한화토탈에너지스 공장도 견학해 석유화학 공정과 연구에 대해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통상과 041-635-2251

더 넓은 세계로, 유럽미술계의 주목을 받다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 삶과 예술

1957년 뉴욕 월드하우스 갤러리가 주최하는 한국현대미술전을 위해 미술사학자 프세티가 이응노의 작품 두 점을 선정했고, 이것을 록펠러 재단이 구입해 뉴욕현대미술관에 기증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 이후 프랑스 평론가 자크 라세뉴에게 한국화가 이응노의 그림이 소개되었고, 라세뉴가 고암을 파리로 초청하는 시점에서 1959년 주한독일대사의 도움으로 독일 순회전을 개최 한 후 1960년 프랑스 파리에 정착한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가난한 생활을 지속하던 이응노는 변변한 물감과 캔버스를 구입 할 수 없었지만, 신문지나 컬러 잡지를 주워 이를 종이죽처럼 만들어 캔버스에 짓이겨 붙이

는 폴라주 작품과 수묵의 점찍기, 겹치기, 번지기 등 기법을 활용하여 그려는 대상의 형상들을 텅 비워내는 추상표현주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곧 프랑스 화단에 신선한 충격을 일으키며 파리 파계티 화랑에서 초대 개인전을 개최한다. 더불어 이 시기 〈문자추상〉, 〈군상〉의 영감이 되는 사람의 율동을 파악할 수 있는 무용 공연과 자연물의 모양을 표현한 상형문자, 동양의 오래된 비석의 마티에르, 새겨진 문자 등 동양의 금석문과 서체,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유럽의 고대 문자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다. /황찬연 DTC아트센터 책임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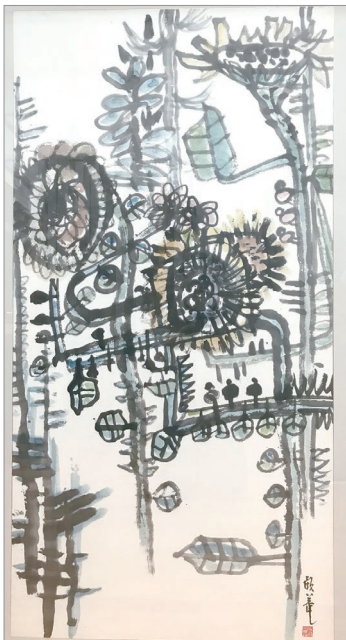
▶ 작품설명

원편은 1950년대 후반 실험성이 강하면서도 국제적 양식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수묵추상 작품이다.



무제,한지에 수묵담채,35.8x53.7cm,1959년

오른편은 1959년 독일 순회전 기간의 작품으로 꼬리를 한것 위로 치켜세우고 기세당당하게 전진하



8월,한지에 수묵담채,130x66cm,1950년대 후반

는 소등에 모자를 쓰고 옆으로 비껴앉은 유유자적한 소물이 끈의 모습이다.

마치 유럽미술이란 광활한 밭을 갈아엎으려 떠난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서산 천수만, 겨울 철새 힘찬 날갯짓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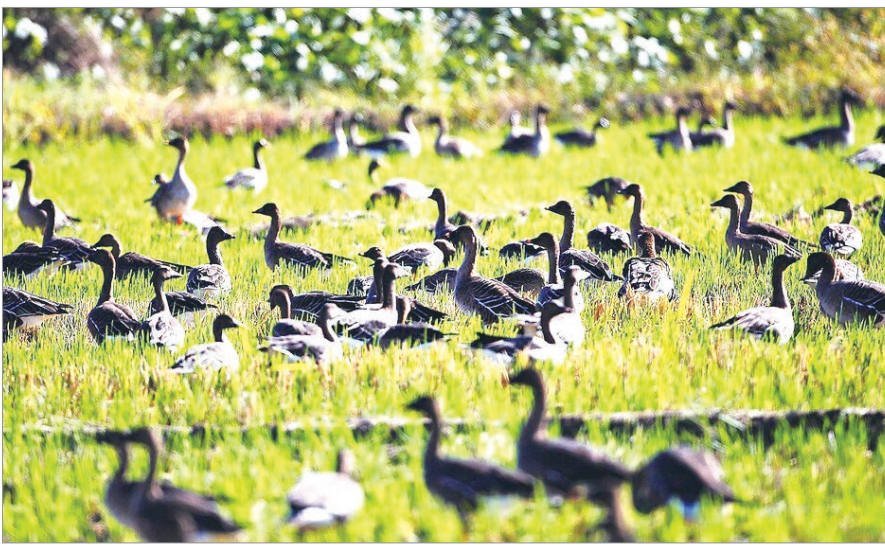
10월 접어들어 급격 증가
기러기류 2만여 개체 도래

[서산]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 충남 서산시 천수만에 겨울철새들의 날갯짓이 시작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9월 중순 천수만 대표 겨울 철새인 기러기가 소수 관찰된 뒤 10월로 접어들며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7일 현재 2만 개체가 넘는 기러기류가 천수만에 동지를 틀었다.

현재 천수만에 도래한 기러기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큰기러기(영명: Bean Goose)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수의 쇠기러기(영명: White-fronted Goose)가 함께 관찰되고 있다.

이들은 천수만의 휴경지나 수확이



10월들어 서산시 천수만에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다.

일찍 끝난 논을 중심으로 먹이활동과 휴식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겨울 철새들에게 휴식처와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벼짚 존치, 무논

조성 등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천수만에 도래하는 기러기류는 10월부터 개체수가 증가해 먹이가



천수만에 철새들이 힘찬 날갯짓을 하며 날아들고 있다.

떨어지는 12월 하순부터 개체수가 감소하는 예년의 경향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은 “천

수만 지역은 서식 환경 보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 철새가 빨리 관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천수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서산시 제공



부여 백마강 코스모스 장관 [부여]충남 부여군 부여읍 백마강 구드래 둔치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상병수당, 근로자까지 확대

11월 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천안]충남 천안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돼 3년 먼저 시범시행 중이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천안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천안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제출해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

다는 증빙을 하면 된다.

/천안시 제공

석장리박물관, ‘한글과 구석기’ 기획전시

10월 9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

[공주]충남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은 한글날을 기념해 기획전 ‘한글과 구석기’를 10월 9일 개막해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1964년 국내 최초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 유적 석장리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으로 구석기 용어가 처음으로 한글로 만들어진 과정을 주목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펜서기라는 용어부터, 주먹도끼, 찌개 등이 모두 석장리 발굴 현장에서 만들어진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석장리 발굴 초기 보고서에도 모두 외래어로 구

석기 용어가 기재돼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석장리유적 발굴 성과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구석기 용어는 1984년 ‘한국고고학 개정용어집’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공개되었고 5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국사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

전시는 한글화된 석기의 명칭(1부), 구석기인의 생활문화(2부), 구석기 한글화 과정의 자료들(3부)로 구성됐다.

특히 2부에서는 한글과 구석기인의 생활문화를 홀로그램과 접목한 ‘작은 박물관’을 선보여 관람객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다.

/공주시 제공



‘한글과 구석기’ 기획전시 포스터

소규모 영농인 생산기반 마련

[계룡]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소규모 원예재배농가의 시설하우스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규모 농업인이 지역 농산품을 거래하는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지속적인 소득 창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영세·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1농가당 330㎡ 이내의 소형 비닐하우스 6동(2,000㎡)을 지원할 예정으로, 원예·특작시설이 갖춰야 하는 자연재해 대비 설계기준에 부합한 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계룡시 제공

‘버려지는 병뚜껑이 키팅으로’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 공유

[태안]태안군이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를 군민과 공유하기 위한 특별한 박람회를 열었다.

군은 지난 6일 태안을 중앙로 광장에서 ▲클럽키파스 ▲갈두천 협동조합 ▲마카네이처 ▲서유채 ▲도자기연구소 담다 등 5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2022 태안군 사회적경제 체험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환경보호 등 사회적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아이টে을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문패 만들기(갈두천 협동조합) ▲비누 만들기(마카네이처) ▲아쿠아포닉스 어항 만들기(서유채) ▲머그컵 및 접시 만들기(도자기연구소 담다)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플라스틱 병뚜껑을 즉석에서 사출해 키팅으로 제작하는 클럽키파스의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시연회를 비롯해 사회적경제 OX퀴즈, 중고마켓, 간식코너 등 다양한 코너도 함께 진행돼 참여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제7회 비대면 건강 걷기대회 개최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

[논산]논산시가 일상 속 최고의 건강 활동인 걷기 운동의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비대면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방법은 ‘걷주’ 또는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에서 논산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논산시 비대면 건강 걷기 대회’ 이벤트를 신청하면 된다.

‘걷주’로 참여할 경우 대회 기간 중에 20만 보 이상 걸으며 스탬프 투어 장소를 찾아 3개 이상의 스탬프를 모

아야 하며, ‘워크온’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기간 안에 20만 보 이상 걸으면 된다.

시는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중 어플리케이션별로 각각 4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소소한 성취감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걷기 대회에 함께해 건강도 챙기고 소소한 즐거움도 맛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시 제공



제68회 백제문화제 개막을 맞아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백제문화제가 진행된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전경.



백제문화제 의자왕의 왕녀 계산공주 출정 행렬.

백제문화제 ‘화려한 부활’ ...90만명 다녀가

1일 부여서 개막·10일 공주시 폐막
맞춤형 콘텐츠로 각계각층서 호평

[공주,부여] 지난 1일 개막을 시작으로 축제에 들어간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의 제68회 백제문화제가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무령왕과 왕비의 유등, 웅진성 퍼레이드 등 열흘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공주시엔 50만, 부여군에는

40만명의 인파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68회 백제문화제의 흥행 요인으로는 타깃층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에 공을 들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타깃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전개하며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한 전략이 통했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대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벚집 놀이터, 백제RPG게임, 사비백제 역사체험관, 백제토기 물레 체험교실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중장년층에게는 연꽃뽕 등 부여 특산품으로 이뤄진 굿뜨래장터가 인기를 끌었다.
메인프로그램인 백제 사비천도 페스타, 백제의 전투, 백가강 달빛 콘서트, 피날레 축하공연, 백제 올림 음악회, 부여 예술 향연 등의 다양한 공연프로

그램으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호평 받았다.
아울러 인기가수 초청 공연은 특히 청소년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백제금동대향로를 테마로 LED 의상, 소품 등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 부여 시가지에서 진행한 ‘백제문화퍼레이드’와 부여 시가지 일대에서 진행한 백제인 한마당, 셔틀택시 운영 등을 통해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공주시는 폐막식에 앞서 이번 축제에 ‘웅진성 퍼레이드’ 불거리가 풍성한 가운데 대형 트레일러 11대가 활용된 가운데 그간 환상적인 무빙스테이지들이 차례로 선보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특히 백제문화제의 대표 시민주도형 퍼레이드인 ‘웅진성 퍼레이드’는 풍성한 불거리가 제공되면서 축제의 진수를 선보였다.
/공주시, 부여군 제공



서산 해미읍성 축제 태종 무예 강습 시연 **[서산]**축제 600주년을 기념한 제19회 충남 서산 해미읍성 축제에서 조선 태종 무예 강습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민초가 쌓은 600년, 세계를 품은 7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 기간에는 총 15만4천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제공

‘홍만조 초상’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명확한 이력 확인 유물로 평가
[아산]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배방읍 소재 홍만조 초상(洪萬朝 肖像)이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풍산홍씨 종가 소장 ‘기사계첩 및 함’ 국보 승격 지정에 이은 또 다른 성과다.
홍만조 초상은 사모단령을 착용하고 교의에 앉아있는 견본채색의 대형 전신상이다. 제작연대는 18세기로 형식은 족자 형태, 재료는 비단, 크기는 세

로 145.1cm, 가로 79.2cm다.
홍만조 초상은 제작기법과 제작 경위 그리고 유전경로 추적이 가능한 점과 상용형식이나 초상 화법이 지닌 학술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1700년경 평양에서 그려진 후 60여년간 평양의 생사당에 보관됐다가 영조 연간 생사당 휘철령에 따라 아산의 종가로 이전된 작품으로 명확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받는다.
초상화를 통해 조선 후기 명·청대의 초상화 도상과 서양화법이 전래해 새

로운 초상화 양식이 형성되던 초창기의 과도기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4일부터 아산지역 풍산홍씨의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온양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전시를 통해 국보로 지정된 ‘기사계첩 및 함’과 ‘홍만조 초상’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아울러 홍만조 초상은 오랫동안 아산 영당에 봉안돼 제례를 행해오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어 2023년 문화재에 대한 복원 수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산시 제공

청양군, 하반기 청년수당 지급
[청양]청양군은 이달 20일부터 청년층의 자립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하반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수당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5세(96년생)와 만 35세(86년생) 청년에게 지원되며, 규모는 상하반기 30만원씩 연 6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2022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기간 합

산이 10년 이상인 청년에게 주어진다. 상반기 청년수당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30만원 어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수당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연말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청양군 제공

요골공소 등 13건 근대건조물 지정

건축유산 보존 기반 마련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공주]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공주의 근현대를 배경으로 역사적, 문화적,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있어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건축유산을 ‘공주시 근대건조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근대건조물에는 한옥으로 건립된 요골공소, 원효정사 법당 등 종교 건축유산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공주 지역의 다양한 주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근대 한옥, 일본식 가옥, 서양식 주택 등 총 13건이다.
요골공소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작은 예배 장소로 1866년 병인박해 이후 각지에서 모여든 신자들이 일군 교우촌에서 기원한다. 천주교 전과 과정에서 건립된 한옥 공소 중의

하나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1912년에 건축된 원효정사 법당은 내외부 목구조를 볼 수 있어 공주 지역 근대 한옥 형태의 종교시설 구조와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시는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위해 지난해 근현대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했으며 전문가의 현지 조사를 거쳐 지난 8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은 우리 지역 근현대 주거 및 생활 모습을 온전히 간직한 근대건조물을 각종 개발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공주시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 제공

예당호 테마형 모노레일 개통

전국 최초 야간경관조명 탐제
가족단위 방문객 수요 기대

[예산]충남 예산군 예당호에 전국 최초 테마형 야간경관조명 모노레일이 개통됐다.
예산군에 따르면 예당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전국 최초 테마형 야간경관조명 모노레일은 1320m의 노선을 24분간 순환하며 열차별(1대=4인승, 6인)로 차량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제작됐다.
조각공원과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등을 조망할 수 있고 수변공간의 사계절과 홀로그램 등 미디어 경관조명으로 흥미진진한 야간경관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타 지역 모노레일보다 안전한

방식의 설계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모노레일 시험 운행 적정성 검토 및 최초 안전검사를 승인받았다. 유·무인자동운전을 병행해 운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 점검 후 재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요금은 성인기준 8000원이고 예산군민은 50% 감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예당호 모노레일은 전국 최초 테마형 야간경관조명을 갖춰 인근 예당호와 출렁다리와 함께 예산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한 차원 높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군 제공



‘안정’의 역작용

내포칼럼



서창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꿈의 직업이던 공무원
지원을 급격히 낮아져

직업 선호기준의 변화
안정성보다 성장 추구

혁명의 시대, 공직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해

꿈의 직업이라고 불리던 공무원 사회에 변화가 일고 있다. 공무원 시험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지는가 하면 기존 공무원들의 이직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5~6년 전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100:1을 넘었는데 최근 29:1로 추락하였고, 7급 공채의 경우도 2016년 76.7:1이던 것이 올해는 42.7:1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고급 공무원 채용시험인 5급 공채 경쟁률도 2017년 41.1:1에서 최근에는 34:1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편 기존 공무원들의 이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년에 의한 퇴직이 아닌 자발적인 이직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지난 해 자발적으로 사표를 쓴 공무원은 전체 퇴직자 44,676명 중 11,500명 정도로 4년 전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자발적 이직 공무원 중 입사한지 5년차 이하가 전체의 25%정도를 차지해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 조사를 보면 청년들의 미래 직업 선호도에서 1위는 대기업, 2위가 공기업, 3위가 국가기관으로 민간 기업의 선호도가 더 높고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잡코리아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이나 구직자들의 희망직장이 72.3%가 신생 스타트업(창업)이라고 답하였다. 과거에는 신생 스타트업은 안정적이지 않고 보수가 약하다는 이유로 기피대상의 1호였지만 최근에는 전혀 다른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 선호의 주 이유가 안정성이었는데 공무원을 탈출하여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직업에 대한 선호 기준이 크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적 안정성 보다는 성장, 변화, 발전과 같은 가치로 직업 선호도가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의식의 큰 변화다.

지금까지 공직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안정성’을 꼽아왔다. 그러나 최근 현상을 보면 공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 안정성은 공무원들이 심리적 안정성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지만, 구성원들 개인의 도전과 창의, 변화에 대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조직에서 개인 의지와 자원에 의한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좌절하거나 안주한다. 5~10년 뒤 조직의 모습과 자신의 위상이 뻔히 보이는 조직은 더 이상 구성원들의 자발적 변화 욕구를 자극하지 못한다. 야망 있는 구성원들의 이직 요인이 된다. 안정적이라서 공직을 선택한 공무원들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공직을 떠나는 기현상을 초래한다.

또 다른 공직 안정성의 문제는 ‘개별’의 안정성이 아니라 ‘모두’의 안정성이라는데 있다. 우수한 사람만 안전해야 되는데 모두가 안전하려고 하니 개인별 역량이나 성과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안 된다. 정작 남아야 할 사람은 떠나고, 떠나야 할 사람만 남는 퇴행적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 조직이 자칫 퇴행적 조직으로 추락할 수 있다.

더 이상 공직을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공직도 경쟁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만 생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유능한 젊은이들이 오는 시대가 되었다. 공직은 안정적이라서 큰 문제 없으면 누구나 정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젊은이들은 아예 안 오거나 아니면 도전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만 온다는 우려도 가능하다.

모든 것이 변하는 혁명의 시대에 공직만 안정될 수 없다. 안정된 조직은 더 위험하다. 변화와 혁신, 경쟁과 차별화는 조직 생존의 필수 항목이다. 정부도 민간과 경쟁하는 시대이고 민간이 더 잘하면 정부기능도 민간으로 이관된다.

미국은 교도소 업무도 국방 업무도 민간에 위탁한다. 정부 기능이 이관되면 그 공무원은 실직할 수 있다. 공직도 민간과 똑 같이 경쟁적이고 위험하지만 잘 하면 큰 대가가 주어진다고 해야만 민간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이다. 세계 시장을 한류로 장악한 스마트한 우리 청년들은 ‘직업적 안정’을 이미 과거 유물로 취급하고 있다. 대단한 청년들이다. 경쟁과 혁신의 진정한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교육, 백년대계 맞나

생생현장리포트



김광섭
특급뉴스 편집국장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을 과연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을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62만 8,117명이다. 이 가운데 0~14세의 비율은 593만 4,472명(11.9%)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901만 8,412명(17.5%)이다. 이에 따르는 유소년 부양비는 16.2%이고, 노년 부양비는 24.6%이다.

그런데 48년 뒤인 207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3,765만 5,867명, 0~14세 인구는 281만 5,279명(7.5%), 65세 이상 인구는 1,747만 2,938명(46.4%)로 예측된다. 이때 유소년 부양비는 16.2%, 노년 부양비는 100.6%로 추산된다.

이러한 통계만 살펴봐도 대한민국은 교육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 인지 답이 나올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그 절반인 50여 년 뒤의 통계만 살펴보다라도 유소년은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년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년 교육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에 관한 이렇다 할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교육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배웠다면, 이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배워야 하는 세상이 된 것.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기계들로 인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휴게소에 가서 밥 한 그릇 사서 먹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원아의 감소로 해마다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학생 수가 총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 국민이 피땀 흘려 낸 혈세를 수십억 원씩이나 들여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다. 기존의 건물을 지역주민, 노인을 위한 교육 장소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해야 한다. 그리고 문 닫는 어린이 집을 노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소년은 줄고, 노인이 늘면 줄어드는 노년 학생으로 채울 수 있는 해결책을 쓰면 될 것 아닌가. 학생보다 교직원인 더 많은 학교까지 있는 불편한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눈치만 보며 외면할 것인가. 이제는 청소년, 학교, 임시교육뿐만 아니라 노인, 디지털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지금 교육부가 할 일이다.

시장통 아이들

소중에 문학관의 책들(10)



소중애 동화작가

천안중앙초등학교의 교문은 시장과 닿아 있었고 90% 이상의 학부모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환경이었다. 성공한 졸업생이 많고 학부모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교였다.

가구점 여사장은 학교 자모로 시장통에서는 큰언니로 통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의도 하고 모여 앉아 음식을 해 먹기도 했다. 날씨 굿은 날이면 시장통 자모들이 큰언니네 모여 철따라 애호박이나 부추 혹은 김장김치를 썰어 넣고 전을 부쳐 채반 그득 학교로 가져왔다.

이런 심성을 가진 시장통 사람들 아이들은 불임성이 좋고 순발력이 있고 발표력도 뛰어났다. 그랬다고 그냥 순둥순둥한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도 강했다. 시장통 아이들은 눈치도 빨랐다. 그러나 아무리 눈치가 빨라도 나쁜 사람들에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분한 일들도 있었다. 아빠가 배달 간 사이에 아빠가 보냈다고 돈을 가져가는 사기범도 있었고 심부름 갔다오는데 물건과 거스름돈을 채가는 도둑도 있었다. 이런 사연으로 시장통 아이들은 점점 영악해졌다.

학년 초에 환경정리하다가 면장갑이 필요해 반 아이에게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놀랍도록 싸게 면장갑을 사 왔다.

“우리 단골집에서 사 왔거든요.” 자랑했다. 그 뒤로도 아이들은 문구 등 필요한 것들을 아주 싸게 사 왔다. 책 속에 넣지 못한 이야기도 있다. 6학년용 가르칠 때였다. 책상 가득 서류를 올려놓고 작성하는데 한 아이가 뛰어 들어왔다. 그 아이가 일으킨 바람으로 서류가 날아갔다.

“어머나 !” 소리치자 아이는 능글맞게 말했다. “저 바람 피지 않았어요 !”

운전면허를 따고 소형차를 마련했다. 시장에서 100미터 가량 올라가는 교문까지의 경사길은 좁아서 무서웠다. 나는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출근을 하곤했다. 조금 익숙해졌을 때 출근 시간을 늦췄는데 시장통에 사는 떠돌이 개가 나타나 경사길 중간에 앉아 비키지를 앓았다. 뽕뽕 놀러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동이 꺼지고 나는 창문을 열고 개에게 사정을 했다. 이 재미있는 상황을 놓칠리 없는 아이들이 쫓아와 소리쳤다.

“차가 작으니깐 개도 무시한다.” “똥차, 똥차.” (새 차인데...)

몇 달 동안 속을 썩이던 떠돌이 개는 내가 시동 꺼뜨리지 않을 즈음 경사길에서 사라졌다.

“정말 날 무시했을까?” 시장통에는 아이들도 개도 특별했다.

순교자의 숭고한 사랑

내포문화술길, 마음으로 걷다

- 내포천주교순례길 5코스

홍주읍성 내에는 감옥터가 있는데 천주교 박해기간에 홍주의 신자 절반 정도가 순교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내포지역은 일찍부터 천주교가 널리 전파되었으며 박해로 인한 순교자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길은 홍주순교성지와 참수 순교터와 신앙 증거지인 옛 저잣거리 등 아픈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천주교순례길 5코스입니다.

순례길을 걸으며 도착한 홍주순교성지는 홍주의사총 앞 도로 건너편에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순교자의 종교적 신념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동일한 ‘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사랑하려고 자신을 세상에 내보낸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던 자식이듯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보내진 존재입니다.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불행한 사람에게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예수의 삶을 반복한다는 것일 겁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순교자들은 이 말을 실천하였습니다.

천주교인 입장에서 박해자들이 원수지만,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천주교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자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마저도 사랑하였

습니다.

순교자들의 사랑은 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박해자의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대신하려는 마음에 순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언제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홍주 천주교 순교성지 비문에 있는 ‘순교자의 숭고한 녘은 평화의 빛이 되리라’ 글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진정한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독립운동가 후손 소망 이뤄준 그림 한장

신양중 3학년 오승진군, 카자흐스탄 ‘뿌리찾기원정대’ 활동
계봉우 지사 손녀 만나 ‘반쪽사진’ 할아버지 초상화 선물
볼펜 한자루 작은 스케치북 “내 그림이 기뻐되는 것 꿈꿔”

[예산] 예산지역 중학생이 지역만리에 서 독립운동가 후손과 만난 감동적인 사연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신양중학교 3학년 오승진 학생이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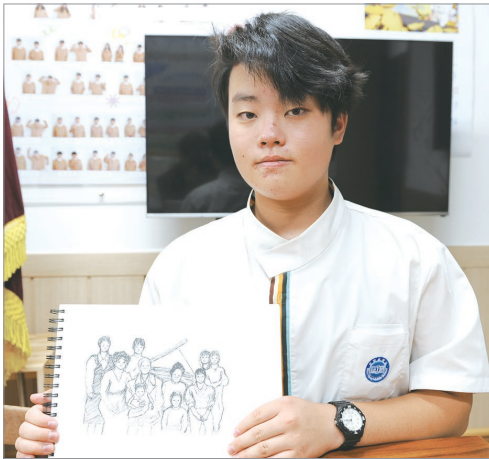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는 프로젝트인 ‘뿌리찾기원정대’ 일원으로 지난 8월 17~29일 12박13일 동안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다. 현지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강행군을 이어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중, 오군이 고려인들을 만나 그림을 그려주는 과정에서 계봉우(1880년 8월 1일~1959년 7월 5일) 지사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계 지사는 북한도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

개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다. 1937년 중앙아시아에 강제이주 뒤 ‘조선문법’과 ‘조선역사’ 등을 집필해 한국어와 역사를 연구·보급했다.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2019년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했다.

뿌리찾기원정대와 동행한 조원희 여행가에 따르면 오군은 카자흐스탄의 작은 시골마을 크질오르다에서 만난 계 지사의 손녀가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연을 듣고 볼펜 한 자루와 작은 스케치북으로 계 지사의 초상화를 그려 전달해 눈물바다가 됐다.

조 여행가는 “오군은 손녀가 갖고 있던 찢어진 반쪽짜리 얼굴사진을 보



오승진 학생이 자신이 그린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승진 학생이 카자흐스탄에서 볼펜으로 그린 계봉우 지사.

고 상상력을 더해 전체 모습을 완성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미소 짓는 그림도 함께 선물해 감동을 더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오군은 “평소 마을 사람들과 농촌 풍경 그리기를 좋아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그림도 좋아서 했던 일”이라며 “내가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오 군이 그림에 사용하는 도구는 A4 크기 스케치북과 볼펜 한 자루다. 그는 “연필로 스케치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바로 볼펜으로 그림을 완성한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따

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다”며 “내가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늘 꿈꿔왔는데, 이제야 실현됐다”며 뿌듯해했다.

그는 스스로 농사일을 도우며 번 돈을 프로젝트 참가비용으로 보냈다. 신양중학교도 적극적으로 나서 출입국 코로나19 검사비와 교통비, 장학금 30만원을 지원했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 지지 그리고 기회가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였다”며 “재학생들에게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에스21청소년재단이 그 가치를 발견해 한국인삼공사 지원을 받아 남북청소년문화원과 힘을 합쳐 빛을 보게 됐으며, 지난 5~6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원들을 공개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군내에선 오군이 13대 1의 경쟁을 뚫고 유일하게 뽑혔다.

/무한정보신문 제공

“지지고 볶고, 50년동안 믿음으로 살았어요”

금혼식 맞은 윤영택·이기순 부부

[당진] 결혼한 부부가 50년을 같이 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금혼식이라고 한다. 50년을 아무 탈 없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만큼 그것을 기념하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신평에 살고 있는 윤영택(78)·이기순(72) 부부는 별이 잘 드는 곳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 집은 하얀색 율타리와 색색의 꽃 화분으로 정갈게 꾸며져 있다.

윤영택·이기순 부부는 당진시여성협의회(회장 권오환)에서 주최한 금혼식에서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처음 입어봤다. 금혼식 대상자는 10년 이상의 봉사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선정됐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서산이 고향이었던 22살 젊은시절 이기순씨는 서울에 살다가 28살이었던 윤영택씨를 중매로 만나 남편의 고향인 신평으로 내려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속아서 결혼했지. 속아서. 요즘 같으면 시할머님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라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결혼 안 할 것이여. 근디 다 그런 줄 알고 결혼했지... 그래두 지금 자식들 다 길러서 나가고 손주들 있고 허니까... 그냥 애



윤영택·이기순 부부의 금혼식 사진.

들 잘 되는게 최고지. 자식 키우면서 제일 미안했던거는 일만 하느라, 요즘에는 애들 봐줄 사람도 많구 그런디 예전에는 애들 집에 가둬두곤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업어주지도 못한거 그제 제일 후회되지 뭐...” - 아내 이기순

50년 동안 같이 산 부부는 속아서 결혼했다. 어려서 뭘 모르고 결혼했다고 말하지만 서로를 보는 얼굴에 웃

는 표정, 주름 하나까지 닮아있었다.

“젊어서는 서울서 있던 아내가 신평으로 내려와서 시할머님이란 시어머님 모시고 애들 다 키우느라 고생 많이했지~ 농사일까지 다 지어가며 인제 가축도 하고, 닭도 맥이고 돼지 맥이고 하근서 50년동안 여기서 살면서 애들 다 보내고, 애들이 손주 낳고... 지금은 농사 다 안하고 꽃 키우고 하근서 살아~” - 남편 윤영택

윤영택·이기순 부부는 이번 금혼식을 통해 충북 제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나, 유럽선도 타고, 호텔에서 1박까지했다. 평생 찍을 사진을 그날 다 찍었다면서 말하는 부부의 얼굴은 마치 50년 전 신혼부부의 모습 그대로 찬란하게 빛났다. 50년동안 함께 산 두 사람은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순도순 살아가기를 희망했다.

“여지까지 뭐 그냥 믿고 살았으니까 살았지 그냥 지지고 볶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안 아픈게 최고여. 취미도 없구... 그제 제일 아쉽지. 취미 하나 없고,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못 해보구... 근데 뭐 지금은 건강하게 살다 애들한테 신세 안지고 꽤 안 끼치고 가는게 제일 큰 바램이고, 한 날 한시에 같이 가는 것도 좋지.” - 아내 이기순

/당진신문 제공

서천문화원, 전통혼례식 개최

2쌍 부부, 백년가약 약속

[서천] 서천문화원(원장 최명규)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서천문화원 잔디밭에서 전통혼례식을 개최했다.

이날은 지난 6월에 전통혼례식 참가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2쌍의 부부가 전통혼례를 올렸다.

사모관대를 차려입은 신랑과 연지곤지를 찢고 족두리로 치장한 신부가 꽃가마 행렬을 시작으로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의 전통혼례 순서에 따라 백년가약을 약속하며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혼례식에 참여한 양모씨 부부는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추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서천문화원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천문화원 최명규 원장은 “전통혼례를 통해 전통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문화원이 마련한 전통혼례식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문화원 잔디밭에서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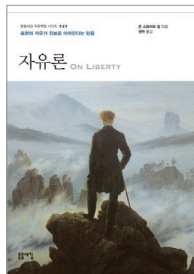
/서천신문사 제공



서천문화원 잔디밭에서 전통혼례식을 올리는 사람들.



사서들의 서재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돌출새김/2016〉

자유란 무엇인가?

우린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자유가 필요해.”,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는 인류의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 항상 중요한 가치를 지녀왔다. 근대 우리가 흔히 입에 담는 이 ‘자유’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존 스튜어트 밀(약칭: 밀)은 〈자유론〉을 저술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후세에 던지며 끊임없는 토론과 해결점을 찾아가는 숙제를 남겼다.

저자는 어린 시절 그리스어와 라틴

어, 플라톤의 〈대화편〉을 접하며 논리학과 경제학을 학습해간 이른바 천재였다. 하지만 학문적 역량을 선보이던 밀도 자신의 사상적 영향을 끼친 ‘벤담주의’에 대한 반감과 주지주의적 이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본인의 감정에 혼돈을 느끼면서 20대에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되는데, 다행히도 ‘테일러’란 여인을 만나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후에 이 둘은 어떤 책을 같이 저술하게 되는데, 그녀에게서 수많은 영감을 받으며 완성한

것이 바로 〈자유론〉이다.

밀은 사회가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 그것이 〈자유론〉을 저술한 목적임을 밝혔다. 다른 사람의 행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밀은 자유론에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다양한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생각의 자유란 남과 다른 의견, 다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밀은 세계를 문명과 비문명 사회로 구분하고, 자유는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시각은 동양을 비문명 사회라 보았다는 제국주의적 사고는 후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여 자유론에서 이야기하는 밀의 시각은 온전히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인간이 언제나 자유롭기를 바라는 한, 그 길을 안내하는 등대가 되어 줄 것임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충남도서관 유재열 사서

생활폐기물의 변신...커피 찌꺼기가 화분으로

커피박 클레이아트 이해선 씨
“환경 지키는데 함께해 주길”

[당진]커피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커피 추출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커피박)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커피 찌꺼기 대부분은 쓰레기로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렇듯 누구나 커피를 즐기지만, 쓰레기로 치부했던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다양한 기법으로 소품을 만들어 자원의 순환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커피박 클레이 공예 전문가 이해선 씨다.

커피박은 커피를 추출하고 발생된 커피 찌꺼기이며, 흔히 원두 가루라고 알고 있다. 사실, 커피박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이해선 씨는 커피박을 소재로 다양한 기법을 통해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알리고 있다.

오래전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



이해선 씨는 ‘가치드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당진농부시장 당장에서 커피박 클레이 공예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커피 찌꺼기로 만든 화분.

며,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온 이해선 씨는 자연스럽게 업사이클링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이에 한국재생아트협동조합을 통해 스티로폼, 캔, 커피박 등의 일상 속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소재로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커피박재생아트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

이해선 씨는 “커피박 외에도 다양한



소재로 재생아트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커피를 좋아했던 만큼 커피박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해보고 싶었다”라며 “커피박 클레이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고, 색을 입히고 있으며, 캔조리로 고리를 만들어 최대한 업사이클링의 취지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박을 이용해 키링, 모형 소품 등을 만드는 커피박 클레이 공예 전문가 이해선 씨는 지난 4월부터는 당진

농부시장 당장에 참여하며 커피박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쉽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커피박 클레이로 만든 화분은 땅에 바로 묻어도 무관할 만큼 자연 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인테리어 소품이다. 이처럼 커피박 클레이 공예 전문가 이해선 씨에게 커피 찌꺼기는 환경을 지키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알리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다.

이해선 씨는 “물과 전분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커피박 클레이는 땅에 바로 묻어도 해가 되지 않을 만큼 무해하며, 친환경 점토다”라며 “천연으로만 만들어진 클레이여서 아무래도 깨지기 쉽고,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친환경 점토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어 “커피박을 소재로 만든 클레이가 아무래도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이들과 어른들도 신기해하지만, 막상 접해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캐릭터를 만드는 틀도 옥수수 소재로

만드는 업체에 제가 따로 요청할 만큼 최대한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커피박 클레이 아트를 통해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과 생활폐기물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생산하고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이해선 씨.

이해선 씨는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한 번씩 커피박 클레이 강좌를 나가고 있다. 아직은 커피박 클레이를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만큼 조금 느리더라도 의미있게 클레이 아트를 알리고 싶다”면서 “다만, 커피박을 클레이로 만드는 것은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과정도 직접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갖고, 생활폐기물을 단순히 쓰레기로 치부하기보다 새로운 자원으로 바꾸는 것에 동참해 환경을 지키는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신문 제공

전국 자동차 동호인들 ‘대천해수욕장에 모여라’

15~16일 ‘제1회 보령 AMC 모터 페스티벌’

[보령]충남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에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2022 제1회 보령 AMC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보령시가 주최하고 아주자동차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차량 튜닝, 전시, 모터스포츠 등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품은 전국 자동차 튜너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15일부터 튜닝카를 비롯

하여 오프로드, 캠핑카, 스포츠카, 슈퍼카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차량 500여 대의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6일에는 모터페스티벌 체험존에서 짐카나 경기가 헬린저스와 챔피언스 2개 클래스로 열리며, 관람객들이 짐카나 동승 체험도 할 수 있다.

짐카나는 평탄한 광장에 표주 등을 사용하여 대단히 복잡한 코스를 설정하고, 그것을 빠져나가는 시간을 다투는 경기를 말한다.

또한 현역 드리프트 선수를 초청하여 드리프

트 쇼런 이벤트를 진행하며, 모터스포츠 전공 박상현 교수의 관람객 드리프트 동승 체험도 열린다.

특히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불꽃 판타지쇼 무대행사가 열리며 육종완밴드, 헤이걸스, 김수빈 등이 축하 공연을 한다. 불꽃판타지쇼 진행은 오후 9시 머드광장 앞 해상에서 이뤄진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을 찾아온 전국의 모든 자동차 동호인을 환영한다”라며 “이색적인 자동차 관람과 스릴있는 경기를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라며 보령 곳곳의 가을철 관광지도 둘러보시길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보령시 제공

충청인의 詩香

바람, 불다

흘러진 공기를 모아
곧추세운 몸이
단풍잎 한 장의 무게로
쓰러진다

휘어지지 않고서는
타협할 수 없고
어깨에 내려앉은
힘을 빼지 않고서는
결코 마주할 수 없는,

바람이 던져주는
차가운 시선이
남은 달력에
말없이 꽃힌다.



진명희 시인

·‘찰나, 외 시집 7권 발간
·충남문학, 제15회 한국문학백년상 등 수상

‘시니어 북딜리버리’ 사업으로 도서관 활성화

가정까지 책 배달 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홍성]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한울작은도서관이 홍성시니어클럽(사회복지법인 수덕)과 손잡고 어르신들이 도서관 책을 가정과 기관까지 배

달하는 ‘시니어북딜리버리’ 서비스로 도서관 활성화에 나섰다.

홍성시니어클럽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인 ‘시니어북딜리버리’는 지난 2월 시작해 관내 공립·사립 도서관 9개소에 14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주5일 동안 출근하여 매일 3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도서관 운영 지원, 시설

소독관리, 관내 책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광천공공도서관과 한울작은도서관에는 각각 2명의 어르신이 근무하며 광천공공도서관은 인근 아동복지시설에 책을 배달하고, 한울작은도서관에서는 내포 LH 스타힐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에 이용자 신청에 따라 추천 도서 3권을 주 1회 배달·수거하며 도서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홍성군 제공

이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가족이란? 법적인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합의한 수준이다. 하지만 법적 정의로는 현대 사회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여성·시민단체 등은 9월 28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는 47만여 가구,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9월 24일 ‘법적인 가족 개념을 삭제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여성가족부를 발표를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1)’에서는 “법적인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68.5%가 동의하며 31.5%만이 비동의했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64.6%가 동의, 35.4%가 비동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민들은 법적인 개념보다 현실에 맞게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더 많은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의 가족 정의에 따르면 동거 및 사실혼 커플 등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없는데, 이것이 삶에서 의

미하는 바는 단순한 법적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삶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 안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도 안되며, 긴급수술 동의 시 보호자로도 인정안된다. 재산형성을 같이 했어도 상속에서 배제되며, 장례를 치를 권리 의무에서도 배제된다. 함께 살지만 그 어떤 권리도 의무도 가질 수 없는 가족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 더하여, 이 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용어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쉽게 떠올리게 해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시정권고한 바 있다.

2022년 대한민국, 이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조윤진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진명희 시인 시집 ‘찰나’ 발간



진명희 시인이 여덟 번째 시집 ‘찰나’를 발간했다.

‘멈춤과 흐름의 조화’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시집은 총 4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찰나의 시간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80편의 시로 담았다.

한편, 진 시인이 작년에 발간한 제6시집 ‘고구마껍질에게 고함’은 제15회 한국문학백년상, 제7시집 ‘이름빛깔’은 충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진 시인은 한국문협 콘텐츠분과위원, 충남문협 부회장, 충남시협 이사, 조선문학회 부회장, 충남문학 운영위원, 한국시협, 서안시문학회, 예산시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해든 deun127@korea.kr

‘의정 역량 강화’ 교육·소통의 장 마련

제12대 의회 의정워크숍 진행 ‘청렴도 전국 1위’ 재탈환 다짐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고,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보령시 일원에서 향후 의정방향 논의 및 의원 간 교류를 위한 ‘제12대 의회 의정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원 46명이 ‘함께 만드는 청렴韓 세상,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청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청렴도 전국 1위’ 재탈환을 다짐하기도 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박재희 석천학당원장(논어에서 배우는 역경 극복의 지혜)과 강지원 변호사(지도자의 사랑과 정의, 반부패 청렴), 정진수 감성컴퍼니 대표(디지털&SNS 마케팅 트렌드와 전략)의 강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조석준 기후변화저널 대표가 ‘천지개벽의 시대, 자기계발과 공적(公的) 역할’을 주제로, 신상훈 ㈜톡킹스피치 대표가 ‘통통통 리더십(고통없이 화통하게 소통하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조 의장은 “제12대 의회는 정과를 떠나 의원 간 화합을 통해 발전하는 충남도의회를 만들어 달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의정워크숍에 참석한 충남도의원 46명이 함께 청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행문위 제103회 전국체전 충남선수단 격려

40개 종목, 1790여명 출전 “그동안 흘린 땀 결실 맺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와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남지역 선수단을 격려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울산시 일원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선수단인 2만 8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충남도는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49

개 종목에 179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먼저 교육위는 지난 10일 충남을 대표해 복싱, 육상, 배구 등의 종목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전고, 천안고 등의 선수단을 방문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며 노력한 선수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모두가 응원하고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3년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인 만큼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문위는 지난 11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종합운동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행문위 김옥수위원장을 비롯해 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 의원이 참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이 결실을 맺길 충남도민과 함께 염원한다”며 “목표한 결과를 이뤄 충남의 명예를 드높여 달라”고 격려했다.

‘제19회 충남서각예술대제전’ 개최

다움아트홀에서 10월 28일까지 예산지부 수상작 등 27점 전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이달 28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19회 충남서각예술대제전’의 예산지부 출품작 및 입선작품 27점을 선보인다.

‘2022년 대한민국 서각대전’과 ‘2022년 대한민국 서예문화대전(서각부분)’ 수상작을 충남지회(8개)에 순회전시하고 있으며, 충남도의회 다움

아트홀 열네 번째 전시전으로 ‘제19회 충남서각예술대제전’을 (사)한국서각협회 충청남도지회 주최로 전시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충남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막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작품은 대한민국 서예문화대전 대전 초대작가(김기현, 김택수, 이정배) 작품과 대한민국 서각대전의 초대작가(김기현, 정지연)의 작품 등이 전시되며, 전통서각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서체 및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색채와 맛을 선보이는 현대서각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충남도의원 내년 의정비 월정수당 ‘동결’

경제 위기 고통분담 차원

연간 5923만 원으로 결정

충남도의회 내년 도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가 올해와 같은 연간 5923만 원으로 결정됐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등으로 힘든 도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액으로, 매년 18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도의회에서 ‘충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

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의장,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 등 각계로부터 위원 10명을 추천받아 지난 9월 19일 구성했다.

의원시론

지역·산업간 양극화 해소 의지 있나?



김명숙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지났다.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출범했으나 행정은 아직도 주민들과 거리가 멀다. 자금의 상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경제·문화적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각 지역단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충남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격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새로 들어선 집행부의 도정운영 방향에서도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된다.

지도를 놓고 민선 8기 충남도정을 살펴보면 ‘힘센 충남’은 이미 인구와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천안·아산·당진·서산에 메디바이오, 2차전지, 디스플레이 소부장, 첨단산업단지 등 핵심 산업이 집중돼 있다. 또한 아산·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 지역에는 해양관광과 해양바이오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남부내륙권과 농림산업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산업 먹거리 계획은 매우 부족하다. 어느 지역

은 두세 번씩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은 시·군명이 거론되지 않아 지역 간뿐만 아니라 산업 간에도 불균형이 우려된다.

충남도는 앞서 2021년 15개 시·군을 5개 산업권역별로 구분해 2040년까지의 미래발전계획인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는 북부 스마트산업권이나 충남혁신도시권, 해양산업권, 국방·웰빙산업권은 국가기간산업 수준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공주·부여·청양의 K-바이오산업권은 농축산업중심으로 계획돼 있어 지역간·산업간 불균형 양극화가 우려되어 지난해에도 대책을 요청한 적이 있다.

현재 저발전 지역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충남도가 시·군별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민선8기 도정과제와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 간 불균형, 농업과 해양·첨단산업 등 다른 산업 간의 양극화 해소 등 보완을 기대한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 제보기간 : 2022. 9. 1. ~ 10. 31.

※ 2022. 11. 1 이후 접수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반영

■ 제보내용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비 보조금의 부당수령, 주요 낭비사례 및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사항 등

■ 제보방법

▶ 인터넷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council.chungnam.go.kr) → 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 우편 (방문)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문의전화/ FAX 041-635-5083/ 041-635-5283

2023년 예산안 토론회 대비 제1차 세미나 개최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 선출 및 예산안 논의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2023년 예산안 토론회 준비를 위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분과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과 분과별 토론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경제위원회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소관하는 제1분과 위원장은

진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이, 행정문화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농수산해양위원회를 소관하는 제2분과 위원장은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이, 교육위원회를 소관할 제3분과 위원장에는 박정식 충남도의원(아산3)이 각각 선출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1월 ‘2023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를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예산안 토론회는 올해 2회째를 맞게 된다.

도의회는 총 3회의 사전 세미나를 열어 지난해 예산안 토론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나갈 계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가 2023년 예산안 토론회 준비를 위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획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은 “의회는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보다 의미 있는 예산안 토론회를 위해 대비하는 사전 세미나의 취지와 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있

으며, 앞으로 있을 예산안 토론회가 의회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하는 정책발전의 토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청소년 성평등 교육 방안 모색

신순옥 의원 의정토론회 개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살피고, 청소년 성평등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의 요청으로 지난달 30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했다.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청소년 성평등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류재민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홍미리 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뿐 아니라 교사·양육자를 포

함한 성인 조력자 대상 교육도 시급하다”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은 성별·학교급을 고려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정책 방향, 청소년 성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 강화, 디지털 성폭력에 대처하는 언론의 자세 등 정책 방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포에 따른 재확산 피해가 매우 크다”며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 2차회의

소방대원 위한 제도방안 논의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원의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과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앞장섰다.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은 지난 7일 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사항에 관한 법규, 조례 등을 검토 논의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의용소방대

원의 ▲자녀장학금제도 ▲소집수당 ▲피복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로 다짐했다.

신한철 의원은 “앞으로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담의용소방대 추진해 가기로 한 만큼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예산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주민자치 이정표 제시

이현숙 의원,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의 요청으로 지난달 30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효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과 김찬동 충남대학교 도시·자치



주민자치 실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가 개최됐다.

융합학과 교수,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의 본질과 원리 ▲주민자치의 역사와 미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의 문제점 ▲주민자치회의 한계 등

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최광희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도로 행정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주민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활동과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가 초기에 안정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발전방안 모색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현실적인 보육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도의회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 모색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 회원들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방안과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현 실태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이 정책 연구를 위해 모였다.

함께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교육연구소 더자람 이만수 책임연구원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 프로그램의 성격, 관리 점검 등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전반적 운영 현황과 개선사

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황 분석을 토대로 충남 방과후과정 추진체계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 보육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현재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각적인 양육지원을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시론

쌀값 유지·타작물 재배 확대해야



정 광 섭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쌀값 하락이 다가오며 풍년으로 추수의 기쁨도 잠시, 쌀의 공급과잉으로 올해도 쌀값 폭락의 우려가 커 농민들의 한숨은 날로 늘고 있다.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출수가 지나 수확기를 앞둔 논을 갈아엎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쌀 4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결정을 내렸다. 국회 또한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이다. 쌀은 92.1%에 달하여 자급이 가능한 반면 밀은 0.5%, 옥수수는 0.7%, 콩은 7.5%에 머물렀다. 즉 쌀을 제외한 타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전쟁 등의 이유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식량 보호주의가 장기화될 경우 우

리나라의 식품과 가공제품의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다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우리가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밀, 콩, 옥수수 및 사료작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사료작물 등 타작물 생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농가들의 국산 조사료 사용을 유도한다면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곡물수입 의존도 역시 낮추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국내 조사료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품종은 옥수수 수확 후인 8월 20일경에 귀리와 혼파하여 두 번 수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 작물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 적정선을 의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의 시름을 덜어야 한다. 또한 타작물 재배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아낌없는 기술 보급과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K-Military, 2722, 254

2022.10.7(금) ~ 10.23(일)
충청남도 계룡시(계룡대 활주로)

- 메인 공연** | 계룡세계군악의장 콘서트, 로드퍼레이드, 뮤지컬 갈라쇼
- 프로그램**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전투 및 기동시범, 고공강하시범, 육해공군의 날, K-MILITARY 경연대회, 계룡산 안보등반, 계룡대 영내투어
- 체험** | 군무기장비 전시·탑승, 헬기탑승 투어, 병영훈련·서바이벌·사격훈련 체험
- 국제회의** | 계룡세계평화포럼
- 전시관** |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